

대림산업, 카르텔 과징금 120억원?

메릴린치증권, 생산규모 기준 110억-120억원 수준 ... 충격 제한적??

메릴린치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된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대림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메릴린치는 “석유화학기업별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율에 따라 전체 과징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체 과징금 규모가 2000억원으로 결정되고, 생산규모에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대림산업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110억-12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주당순이익(EPS)을 3-4% 끌어내리는 제한적인 충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증권은 대림산업의 2007년 EPS 증가율이 2006년 대비 24%에 달하고, 향후 3년간 수주 증가량이 연평균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부문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1>